

# 맛도 빛깔도 '황금'...장성 옐로우 황금사과 출하



과즙 풍부 식감도 좋아...내일부터 광주신세계백화점서 직거래행사도

옐로우시티 장성의 대표 과일인 '옐로우 황금 사과' (사진)가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장성군은 옐로우 황금사과가 지난 14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금사과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직거래 행사도 열리는데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다. 장성군이 지난해 첫 수확에 성공한 옐로우황금 사과는 익었을 때 빨간색이 아닌 노란빛을 띤다.

맛이 새콤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식감은 아삭하다. 개당 무게는 350~400g으로 부피가 일반 사과보다 크고 배와 비슷하다. 껍은 채 상온에 두어도 갈변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단단한 과육 덕분에 저장성이 뛰어나 6개월간 저온 저장이 가능하다. 농가에도 이득을 준다. 반사필름 설치, 열매 돌리기, 잎 따기 등 색을 내는 작업이 필요 없어 생산비용을 10% 줄일 수 있

다. 홍로와 후지 품종 사이인 10월 상·중순에 출하해 틈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장성군은 지역 명소인 황룡강의 이름에서 노란색을 부각한 색재마케팅 '옐로우시티'를 도입했다. 옐로우황금사과 육성은 과일도 노란색을 추구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2017년 모둠 2500주를 농가에 지원하며 시작했다. 옐로우황금사과 명칭으로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을 마쳐 30여 농가가 12ha 면적에서 재배 중이다. 장성군은 2023년까지 40ha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나주시-의회 '미화원 부정채용 의혹' 싸고 전면전 양상

시, 의원 고소에 시의회 규탄 결의문 채택...전직 시의원·시민단체 1인 시위

환경미화원 채용 부정 의혹과 관련 나주시와 의회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이다. 시의원의 5분 발언으로 촉발된 갈등 양상이 해결될 기미는커녕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마냥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나주시가 시의회를 고소하자 시의회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전직 의장 등 지역 정치권도 가세해 나주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14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나주시 간부공무원의 나주시의회 의원 고소 규탄과 나주시장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반 논란 끝에 전체 의원 15명 중 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들은 "시의원의 5분 발언은 고유권한으로 시와 공무원이 이를 폄해·침해하고 고소를 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의정활동 방해와 발목잡기를 중단하

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전직 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전직 의장 3명 등 전직 시의원 20명은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사랑시민' 안희만 상임이사는 13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진보당과 민주노총 등도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부정 채용 의혹은 지난날 4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차남 의원이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 금품 수수 정황 등이 있다"며 행정사무 감사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달 18일 나주시가 관계 공무원 이름으로 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됐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의회 전직 의원들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고발에 대한 나주시장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화순군은 지난 8일 정경옥 강사를 초청해 '핸드 드립커피 체험을 통한 심신의 피로 풀기'를 주제로 '청춘 문화살롱'을 열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 열었다

청년들 삶의 질 향상·창의적 활동 도모...강의·체험활동 전개

화순군은 청년 공동체 문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춘 문화살롱'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하는 청춘 문화살롱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월10일까지 퍼스널 컬러 찾기, 핸드드립 커피 체험을 통한 심신의 피로 풀기, 호감을 주는 대화 기법, 가족지갑 공예를 통한 자아성취 도달 등을 주제로 총 6차례 진행된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핸드드립 커피 체험을 통한 심신의 피로 풀기'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청년

들에게 진한 커피향을 전했다. 이날 문화살롱에서는 정경옥 강사가 커피의 유래, 좋은 커피 고르는 법, 케냐에서 직수입한 무농약 생두를 이용한 로스팅 과정, 그라인더 사용 방법, 핸드드립 요령 등을 강의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이 문화살롱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내년에 청년센터가 문을 열면 '청춘 문화살롱'은 청년들의 소통과 문화 정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중량제 봉투 25kg이하로 제한  
환경미화원 부상 위험 줄인다  
함평군, 폐기물 조례 개정

함평군이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50l 이상 규격의 중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최대 25kg 이하로 제한했다. 함평군은 대형 폐기물 품목을 세분화하고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등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대형폐기물 품목을 기존 58종에서 94종으로 세분화하고 냉장고·침대·소화기 등의 수수료를 명확히 했다. 기존 8종이었던 재활용 가능 폐기품목은 12종으로 확대하고 기간이 길어 민원 발생이 잦았던 청결 유지 명령 이행기간은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사업장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중량제봉투 미배출 폐기물과 다중이용시설 생활폐기물을 소각 가능 여부에 따라 소각·매립용 봉투로 각각 분리 배출토록 규정했으며, 불연성 폐기물은 t당 7만5000원, 가연성 폐기물은 t당 9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함평군은 또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중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해 3l 규격의 중량제봉투는 없애고 75l 규격을 신설했다. 배출중량 역시 환경미화원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50l 이상 규격의 중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최대 25kg 이하로 제한했다. 쓰레기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와 지급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오·남용 우려가 있는 폐의약품을 지정된 장소(약국·보건소 등)에 배출토록 하는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함평=황은화 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시, 임신부 건강관리비  
20만원 지원...내일까지 신청

나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로 2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임신이 확인된 나주시 거주자다. 임신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6일까지 나주시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를 비롯해 주민등록초본, 임신 확인서·산모 수첩 등 임신부 확인 서류와 임신부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신부 건강관리비는 아동특별 돌봄지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